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 취임 1주년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강 영
남구의회 의장

▲구민과의 약속을 위해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쉽없이 달려온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처럼 소통하는 의회, 구민에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진 제8대 의회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주민복지를 위한 대안 제시와 법제화에 노력한 결과 조례안 61건, 동의안 8건, 예산안 4건, 행정사무감사 1회, 5분 자유발언 25회, 구정질문 1회 등 역대 의회중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구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특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미디어 방송에 송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의회교실을 열어 입법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알려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언론협회 주관 ‘지방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지방의회 혁신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덕분입니다.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처음처럼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 현장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장으로써 소통과 협치를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만 1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복합청사 문제나 지역화폐 문제 등 몇몇 안건에 대해 의회의 불협화음이나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해관계 조정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구민 행복이라는 초당적인 목표를 위해 대화하고 다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동료 의원들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의회의 또 다른 역할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항상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집행에 낭비요소는 없는지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구는 부산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 트램유치, 용호부두 폐쇄,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문현국제금융센터, 유엔세계평화공원 조성, 2030등 록엑스포 등 남구의 위상이 바뀌는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긴밀히 협조하고, 이해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의결과 정책집행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달리는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무조각적인 견제,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는 결코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과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오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활력 넘치는 남구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히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주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냉정한 비판과 질책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태내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협력의 정치로 행복 남구 조성에 최선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민주항쟁기념일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먼저, 28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평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 감만부두 유회화력발전 저장소 및 용당 레미콘 공장 분쟁해결 등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민생 관련 각종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목적이 맞는지, 낭비는 없었는지를 잘 살펴 재정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례안 계류 사례처럼 중요

한 사항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의 소홀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변화의 열망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8대 의회가 11개월 동안 쉽 없이 달려왔지만, 내부의 불협화음과 여야의 반목이 오래 지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견 대립은 발생할 수 있지만 민의에 따라 초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력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 개개인의 몫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품격 있는 언행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부진한 사업은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무더위와 장마가 예상됩니다. 혹서기 주민 안전대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남구의원 모두는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데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방청장소 : 본회의장
-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방청시기 : 남구의회 회기중(정례회, 임시회)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의회사무국 ☎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벌였다. 의회는 개회 첫 날인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상임위원회별 안전심사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6월 11일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시켰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6월 12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시켰으며,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시켰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시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안’ 등 3건의 안건은 면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6월 17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강건우 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백석민, 김현미, 허미향, 조상진, 이병준, 고선화, 박구슬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 중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 제27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역시 남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함.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승인을 요구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과 일자리, 생활 SOC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회의 모습.



박구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박 구 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구슬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구슬 위원장은 2020년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남구의 예산안 등 예산·결산 심사를 책임지며 구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상황을 살

피게 된다.

박구슬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건을 존중하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우리 남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

요불급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을 위해서 사업 추진 및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선임 소감을 밝혔다.

2019년도 상반기 남구의회 의회교실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6월 4~28일 4회에 걸쳐 용당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 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의원 특강과 모의의회 체험 등의 내용으로 2019년도 상반기 ‘남구의회 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 백석민 의원, 허미향 의원, 강건우 의원, 고선화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또한, 모의의회 체험현장에서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 신체검사를 할 때 개인정보 및 학생인권 보호에 대한 법률안’, 안전에 대하여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조례안을 발의·제안하고 질의하며 찬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 입법절차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학생 전원이 의장석에서 의사봉 3차 체험과 기념촬영 및 기념품을 받으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향후, 9월부터 10월까지 있을 2019년도 하반기 ‘남구의회 의회교실’은 대연고등학교, 용소초등학교, 오륙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구의회는 6월 4일 용당초등학교 6학년 33명을 대상으로 ‘남구의회 의회교실’을 열었다.



남구의회는 6월 24일과 26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성동초등학교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남구의회 의회교실’을 열었다.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남구서 열려

남구의회(의장 이강영, 앞줄 왼쪽 세번째)는 지난 6월 27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2개 구·군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와 현안사항을 토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으로 월례회가 진행되었다.